

소상공인·中企 거래비용 ‘허덕’… 플랫폼에 매출 22% 지불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 심화

중기중앙회, 1250곳 대상 설문조사
배달앱, 거래비용 부담률 가장 높아
일부 업체는 매출 절반 가량 지출
온라인쇼핑몰 입점사 53.7%
주거래 플랫폼 매출액 비중 100%

음식점, 숙박업, 온라인 판매 등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올라갔다.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사업자 비율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4년 조사에서 9.1%에 그쳤지만 올해엔 69.5%까지 상승했다. 숙박업의 경우 같은 기간 8%에서 39.2%, 배달앱은 3%에서 23.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입점기업의 절반은 주거래 플랫폼 매출 비중이 100%로 절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들은 월 매출액의 21.7%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총 거래비용 수준(월평균 매출액 중 비율)〉

(단위: %)

	최저(업체)	최대(업체)	평균	개별 플랫폼						
온소몰	5.0 (전체)	45.0 (쿠팡)	20.6	쿠팡	네이버	무신사	G마켓	11번가	SSG	롯데온
				22.0	18.8	24.3	19.6	19.6	17.2	18.8
배달앱	3.0 (쿠팡이츠)	45.0 (배민, 쿠팡이츠)	26.2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23.0			27.6		26.4	
숙박앱	5.0 (야놀자)	40.0 (야놀자, 여기어때)	18.3	야놀자			여기어때			
				18.6			18.0			

/중소기업중앙회

이 해당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업)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7월 3일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G마켓,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온라인쇼핑몰 입점 650개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50개사,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업 250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업 18.3% 순이었다. 개별업체 기준 최고 부담률은 온라인쇼

핑몰은 쿠팡(45%),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45%), 숙박업은 야놀자·여기어때(40%)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매출의 절반가량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5%(전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3%(쿠팡이츠), 숙박업 5%(야놀자)로 입점업체별 편차가 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비용 부담이 커졌다.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5.2%포인트(p) 높아졌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업은 0.8%p 올랐다. 주거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100%라고 답했다. 숙박업은

'75~100% 미만' (38.4%), 배달앱은 '25~50% 미만' (28.9%)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근 3개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면 플랫폼 유형을 불문하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불공정거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업 9.2%였다. 경험 유형 1순위는 온라인쇼핑몰 '상품의 부당한 반품' (14.2%), 배달앱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 (3.1%), 숙박업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2.4%)를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이소영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상태 기준으로 규제해야”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플랫폼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커 머리 아닌 가슴으로 정책 펼칠 것”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 견해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조기에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의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쿠팡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통받고 있다. 온플법이나 논의 중인 법안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고, 공공배달앱을 경

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먼저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선 “공공배달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민간 배달앱에 비해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다. 단순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야놀자처럼 벤처 혁신기업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주요 플랫폼 업체가 돼 골목상권의 포식자가 되는 이중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나’는 질문에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광장히 신중해야겠지만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

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는 “작은 가게를 꾸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머리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비도 가져갈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을 세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며 “주 52시간이라는 확실적인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6' 전시장. /대한전선

대한전선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전력망 사업 경쟁력 알려

대한전선이 국내 최대 기후·에너지 행사에서 해저케이블 단키(Turn-key) 솔루션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버스덕트 기술을 공개하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차세대 전력망 사업 경쟁력을 알린다.

대한전선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30개 부스(27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해저케이블 단키 솔루션과 HVDC, 버스덕트 기술을 소개한다. 부스 전면에는 CLV 선대와 해저케이블 제품을 배치해 케이블 생산부터 운송·포설·시공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선보인다.

해저케이블 전시 공간에서는 '스칸디나비아'와 '팔로스' 모형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1만1000톤급 스칸디나비아는 해상풍력 내·외부망과 장거리 계통연계, HVDC 해저케이블 시공에 투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CLV다.

525킬로볼트(kV)급 HVDC 해저케이블과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나믹 해저케이블도 전시한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2공장의 생산 인프라도 소개한다. 2공장에서는 640kV급 HVDC와 400kV급 초고압교류송전(HVA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전력 호황 속 엇갈린 LS 노사… 전선 ‘파업’, 일렉트릭 ‘무교섭’

LS전선, 오늘 파업 출정식 예정
임금 협상·노사 간 불신 등 원인
LS일렉트릭, 2년 연속 무교섭 타결

LS전선 노조가 성과 배분과 노조 활동 보장을 둘러싼 사측과의 갈등으로 설립 37년 만의 첫 파업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로 전력 계열사들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같은 LS그룹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은 지난 7월 2년 연속 임금·단체협약을 무교섭 타결해 대조를 이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LS전선 노조는 16일 강원 동해사업장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쟁의행

위는 근무 교대 이후 업무 외 시간에 각 사업장에서 약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파업이 진행되면 1989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제9차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 노조 활동 보장이다. 노조는 교섭 초기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요구 수준을 일부 낮췄지만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측은 기본급 4% 인상과 성과급 850만원 정

액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뿐 아니라 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쌓인 불신도 이번 쟁의행위의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교섭 이후 사측이 노조위원장 교체를 시도하는 등 노조 외해에 나서면서 노사 간 불신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LS전선 노조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나온 수정안을 조함은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현재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면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사 간 이견을 좁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에 따른 쟁의 상황은 충

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상생 경향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행위가 예고된 구미사업장은 전력·통신케이블을, 동해사업장은 해저·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의 주요 생산거점이다. LS전선의 올해 상반기 말 수주잔고는 7조8336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LS의 합산 수주잔고도 19조5554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했다.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회사 모두 수주가 늘고 있지만 노사 협상 결과는 엇갈렸다. LS일렉트릭 교섭대표노조는 지난 7월 10일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했다. LS일렉트릭은 같은 달 15일 직원 352명에게 자사주를 1인당 10주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관희 기자 wkh@